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9년 12월

#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 [문학] 코닥지 맛 젤리를 찾아서

★ 현실에 대한 깨알 같은 비유들이 가득한 판타지 문학을 즐기는 법!

## [문학]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난다

★ <어린 왕자>와 다섯 번의 은유를 만나 문학의 풍요로운 원래 쓸모를 찾다

## [철학] 연애 인문학 :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 사랑하기도 힘겨운 시대, 연애로 풀어보는 관계의 인문학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9년 12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중등부 문학 20만원(10강), 고등부 철학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초등부는 2020년 2월 마지막 주(23일)까지 강의 예정이며 기간 중 설 연휴 포함 총 3주 휴강이 있습니다. 중등부도 같은 기간까지 강의 예정이며 기간 중 설 연휴 1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고등부는 휴강 없이 2020년 1월12일까지 강의 예정입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

# 문학 초등

## 코딱지 맛 젤리를 찾아서(10강)

★ 현실에 대한 깨알 같은 비유들이 가득한 판타지 문학을 즐기는 법!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19년 12월 1일~2020년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특이사항	4강, 6~10강은 책 제목입니다. 해당 강좌 전에 읽고 와 주세요. 4강 고양이 학교 시리즈는 1권만 읽고 오셔도 됩니다. 5강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 주세요!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문학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초딩이 얼마나 될까요? 받아쓰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책 읽어라!” 타령~ 너무 질린 나머지 이제는 책 표지만 봐도 짜게 식어 버리고 마는 그 맘, 물론 이해하고 말고요. 하지만 책이라면 하품부터 하고 보는 여러분의 뻘뻘한 맘속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듣고 싶다!’라는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문학은 책이라는 형식에 묶여있을 뿐, 그 본질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야기를 즐기는 성향이 본능처럼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든 이 문학 본능을 깨워보고자 선정한 이번 주제는 ‘판타지 문학’입니다.

판타지 문학은 다른 어떤 문학보다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뿐인가요. 용과 요정 같은 환상 속의 종족이 살고, 하늘에 살면서 번개로 싸우는 신들의 세계라고 해서 ‘판타지 세계’가 밀도 끝도 없는 가짜 현실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판타지 작품 안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 속에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 했던 현실의 조각들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요. 나다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느덧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소설 해리포터에 나온 코딱지 맛 젤리는 영국에서 실제로 제작,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판타지는 당신의 흔한 일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기 위한 판타지 문학으로의 여행, 함께 하지 않을까요?

.....

## 1강\_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가는 입구

해리포터 시리즈는 판타지 문학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이마에 번개 모양 흉터를 가진 마법사 소년의 모험담은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였을까요? 아이들이 판타지 세계를 찾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해리포터에 나오는 9와 4분의 3 승강장 앞으로 찾아가 보기로 해요. 호그와트행 열차 대신 코딱지 맛 젤리 열차를 타고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역을 향해 한 번 떠나 볼까요?

## 2강\_ 10대와 판타지: 사람이 아닌 것들의 세계

엑스맨, 아이언맨, 토르 등등 인기 있는 판타지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인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뱀파이어, 늑대인간, 좀비, 악마, 심지어 신에 이르기까지 그 종족도 아주 다양하죠. 이런 판타지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는 이들이 바로 10대입니다. 10대가 괴물 이야기에 이토록 끌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아닌 것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은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 3강\_ 북유럽 신화: 신과 거인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그래서 더 신비로운 면이 있는 북유럽 신화는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곳에서 그 매력을 발휘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번개 망치 몰니르를 든 토르는 대표적인 북유럽의 신이지요. 사실 각 지역의 신화들은 본격적인 판타지 문학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인류의 고대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판타지물의 기원이라 할 수 있어요. 2019년 현재에서 기원전으로 수천 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판타지의 탄생을 살펴봅시다!

## 4강\_ 『고양이 학교』, 김진경, 문학동네

고양이 세계에도 해리포터가 있어요~! ‘고양이 학교’는 주인공 버들이가 냥이들의 호그와트라고 할 수 있는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세계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고양이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 맞서 싸우게 되지요. “이기는 쪽이 내 편~ 주인공 이겨라~!” 주인공 버들이만 응원하는 독자들에게 책 속의 그림자 고양이들이 이렇게 항변한다면 어떨까요? “어이, 인간들! 우리 이야기도 좀 자세히 들어봐. 진짜로 이 세상을 위하는 건 너희 인간이 아니라,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속사정을 자세히 듣게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공 이겨라~”를 외칠 수 있을까요?

## 5강\_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치히로는 엘리스처럼 이상한 나라에 풍당 빠져버린 소녀입니다. 그곳에서 치히로는 부모님도, 자신의 진짜 이름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아요. 치히로 뿐만이 아니에요. 유바바가 다스리는 온천장 안에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고단한 일과를 반복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안녕한가요? 잃어버린 이름을 둘러싼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함께 풀어보지 않을까요?

## 6강\_ 『가벼운 공주』, 조지 맥도날드, 이경혜 옮김, 문학과 지성사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많고 많은 공주 중에서 특이한 거로 치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공주님이 있습니다. 이 공주님은 공기처럼 너무 가벼워서 툭 하면 허공을 날아다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슬픔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녀는 대체 무슨 저주를 받은 걸까요? 이 이상한 저주에서 공주를 구원해줄 용사님은 바로 여러분이랍니다. 공주님이 가벼워진 원인을 찾아서 그녀의 무게를 되찾아주세요!

## 7강\_ 『사자왕 형제의 모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김경희 옮김, 창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은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어느 우애 좋은 형제가 ‘낭기열라’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그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군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발랄하고 유쾌한 삐삐와 달리 이 책은 조금 슬픈 모험담이에요. 일곱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슬픔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 8강\_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지혜연 옮김, 시공주니어

맛있는 초콜릿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를 썩게 하지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둘러싸인 동산은 아이들의 달콤한 천국 같아 보이지만, 이곳에는 초대받은 아이들을 안내하는 공장장 찰리의 의미심장한 미소처럼 독이 숨어있어요. 이 독에 당하고 싶지 않다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의심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할 거예요! 마음의 방패를 들고 찰리의 공장으로 들어가 초콜릿 공장이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을 파헤쳐봅시다~!

## 9강\_ 『열두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오카다 준, 김난주 옮김, 국민서관

수면제 같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흘려 깜빡 졸고 있었던 당신, 문득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깨어 보니 이게 웬걸? 반 친구들이 모조리 가시덩굴에 휘감겨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학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통 때의 한가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매일 낮 열두시가 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시 괴상한 가시덩굴에 휩싸이고 말죠. 이 이상한 사건이 아홉 번째 책 속의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학교에 다니면서 지루함에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가시덩굴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음을….

## 10강\_ 『기억전달자』, 로이스 로우리, 장은수 옮김, 비룡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커뮤니티(사회)’에는 굶주림과 가난이 없어요. 사람들은 감정 통제를 통해 미움, 증오,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쟁 또한 일어나지 않지요. 나쁜 기억을 보고 배워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기억은 단 한 사람, ‘기억 전달자’만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 따위 다 잊어버리고 평온하게만 살 수 있다면 인류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수업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를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 문학 중등

##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나다(10강)

★ <어린 왕자>와 다섯 번의 은유를 만나 문학의 풍요로운 원래  
쓸모를 찾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19년 12월 15일~2020년 2월 23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당신은 언제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났을까요? 모든 집의 책꽂이에 한권쯤은 꽂혀있을 것만 같은 그 책, 서점에 가면 ‘청소년을 위한 추천 도서’ 진열대에 빠지지 않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책, 학교에서 추천하는 필독서 명단에도 자주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책의 주인공을 우리는 어렵푼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는 이렇듯 낯선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를 떠올릴 때면 느껴지는 아련하고 신비한 이미지는 그를 가까운 친구처럼 마냥 편안하게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괴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낯설고 신비하고 이상한 그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작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를 그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비한 이야기로만 읽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가가 자신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찾아낼 수 없도록 일부러 꼭꼭 숨겨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작가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 우리는 문학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 왕자』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많은 은유가 있어 ‘어린 왕자’의 은유를 둘러싸고 그 존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학의 은유를 읽는 일은, 은유와 은유의 연관, 은유와 세상의 연관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는 일은 꽤 재미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어린 왕자』처럼 수수께끼 같은 은유가 잔뜩 널려있는 책을 읽는 재미는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왕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종종 사고하는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미지와 달리 삶을 훨씬 풍부하게 만드는 힘이 여러 문학

속 은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우리가 책 읽기를 외면해 버릴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 겨울, 어린 왕자 포함 총 여섯 권의 문학작품을 통해 은유라는 문학의 숨겨진 의미를 풀어내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낯선 시도를 통해 조금은 더 세상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

## PART 1 : 누구나 어린 왕자를 만난다

### 1강\_ 어린 왕자는 누구일까?

『어린 왕자』를 읽고도 어린 왕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그 아이의 황금빛 머리칼이 보이지 않나요? 어린 왕자는 어쩌면 당신 곁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 2강\_ 사막이 아름다운 건...

이제는 사막에 도시도 만드는 시대라지만 우리에게 사막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만났던 사막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찬란한 도시도, 이 도시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도, 현실이라는 사막이며 사막의 모래알이라고 어린 왕자는 속삭입니다.

### 3강\_ 양을 쫓는 모험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가 처음 건넨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림 속의 양이 자신의 별을 위협하는 바오밥 나무의 어린싹을 미리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니,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 4강\_ 누군가의 별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 여섯 개의 별들과 각각의 별에 사는 여섯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왕과 모 두가 자기를 경배해야 한다는 허영쟁이, 늘 술만 마시는 술꾼과 별 모으느라 바쁜 사업가, 실 새 없이 가로등만 켜다 껐다 하는 사람과 가보지도 않고 기록만 하는 지리학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 5강\_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의 장미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둘도 없는 친구나 애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특별히 나에게 잘 어울리도록 타고난 것일까요?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 PART 2 :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꿈을 꾸는 방법

## 6강\_ 『오즈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 바움, 김영진 옮김, 비룡소

겁쟁이 사자, 마음을 갖고 싶은 깡통 나무꾼, 뇌가 절실한 허수아비와 함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오즈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단순한 판타지 모험극이 아니라 당시의 미국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사회성 짙은 이야기입니다. 뭘 동화가 이러냐고요? 원래 동화 속 판타지에는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 7강\_ 『악어 外』, 도스토예프스키, 박혜경-심성보 옮김, 열린책들

어느 날 동물원에 갔는데 악어가 당신의 친구를 삼켰다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살아있고 그 속이 편하다며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통나무처럼 누워서도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우리나라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대부분의 기사도 통나무처럼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야... 아무도 없는 외진 구석이나 악어 뱃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면 즉시 인류를 위한 완벽한 천년 시대를 구상해낼 수 있어...”

악어가죽처럼 질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말만 많은 이 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악어 뱃속 같은 현실에 사는 것은 아닐까요?

## 8강\_ 『모모』, 미하엘 엔데, 한미희 옮김, 비룡소

“시간 도둑들과 도둑맞은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어린 소녀 모모에 대한 이상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모모에 관한 한 줄 소개입니다. 그런데 어찌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둑들이 실제로 우리의 시간도 훔쳐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소설 처럼 회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 9강\_ 『수상한 빵집과 52장의 카드』, 요슈타인 가아더, 백설자 옮김, 현암사

거대한 우주 속에 먼지처럼 작은 존재 vs 우주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위대한 존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그 해답은 숫자도 없고 무늬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 조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 카드 놀이를 할 때나 사용하는 조커. 그 조커가 우리를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 10강\_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햇살과 나무꾼 옮김, 비룡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게 될 책 『은하철도의 밤』은 이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고요. 그런데 정작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과도 다른 매우 특이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 특히나 흥미진진한 판타지 소설에 길들여진 요즘 사람들에게겐 한없이 낯선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은 꿈을 꾸자고, 올겨울 당신에게 권해 보는 마지막 책입니다.■

# 철학 고등

## 연애 인문학 :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5강)

★ 사랑하기도 힘겨운 시대, 연애로 풀어보는 관계의 인문학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19년 12월 15일~2020년 1월 12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정말.”

과거 모 인기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처럼 이렇게 단순하면 좋으련만, 현실 속 대부분의 연애는 밀고 당기고 지지고 뉘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니, <연애의 참견>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설렘과 황홀, 불안과 집착, 실망과 배신이 난무하는 막장드라마에 가까운 행위는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실제 연애란 고명하신 철학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난독과 해석 불가능의 텍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연애라는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은 어지간한 인간관계의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꽤 그럴싸한 공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문학 공부가 세상에 새겨진 수많은 글자를 읽는 과정이라면 당신의 얼굴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글자, 세계를 함축한 메타포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역사와 예술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이가 연예인 보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연예인보다 사랑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TV 속 등장인물과 같은 속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될 위험성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건 진실은 연애를 둘러싼 인문학적 수다 모임에 당신이 참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1강\_ 이웃집 꽃미남 : 연애 판타지를 넘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환상적인 연애를 꿈꿉니다. 여자들의 대표 판타지인 ‘백마 탄 왕자님’은 여전히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꿈속을 질주합니다. 예쁘고 섹시하고 청순하고 글래머러스하고 순종적이면서 돈 많은 여성이 나만을 사랑해준다면 마다할 남자가 있

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하지만 이런 전형적 판타지는 조금씩 모양을 바꿔서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혹시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특별한 연애 판타지가 있나요?

## 2강\_ 연애의 신 : 속물적 연애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것들

혹시 당신 주변에 있는 썸남 혹은 썸녀 때문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연애도 아니고 연애 아닌 것도 아닌 사이는 언젠가 닥쳐올 다른 근사한 연애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덜컥 다가섰다가 개망신 당할까 봐 부여잡는 자존심 때문일까요?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애 관계에서는 밀당이 필수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밀당 따윈 너무 싫어, 라고 질색하는 사람조차도 연애를 시작하면 밀당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밀당의 기술을 연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3강\_ 레인보우 로망스 :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요즘은 공중파 TV의 연속극에서도 동성애가 등장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다소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동성애를 불쾌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동성애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형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애도 물론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 4강\_ 남자가 사랑할 때 : 가부장 사회의 연애관

자신의 꿈이 현모양처라고 수줍게 고백하는 소녀를, 요즘도 뜨문뜨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모양처만으로도 부족해서,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요부'를 바라는 남성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남성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여성상이 여전히 여성들의 바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강력한 가부장 사회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모양처 따위를 요구하는 그딴 남자, 안 만나면 그만이라고요? 해묵은 가부장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남자의 마음에 숨죽여 도사리고 있다면요?

## 5강\_ 자본주의 러브스토리 : 소비 자본주의와 연애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감정이 그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영향받고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사회에서 사랑은 소비사회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애인의 조건이 얼마나 상품 가치를 가지느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사랑의 크기가 명품 백이나 다이아반지로 측정되기도 하고, 사랑 그 자체가 멜로나 예로 같은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짜리 애인과 얼마짜리 데이트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해서 연애도 못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12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